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열왕기하 5장 8-14절

날짜: 5월 17일, 2026년

설교자: 서영민 목사님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국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위대한 용사이자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모두 진 당대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러”고 기록하며 인간이 가진 외적인 조건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둥병은 인간 내면에 깊이 잠복해 있다가 결국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으로, 영적으로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류에게 유전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물질, 도덕, 철학, 종교로는 이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온 한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의 말, 즉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말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면서도 세상적인 기복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액수의 금과 은,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준비했으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왕을 잘못 찾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왕은 절망하며 옷을 찢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부패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른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은 채, 사자를 통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지극히 단순한 처방을 내립니다. 이때 나아만은 크게 분노하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는 대국의 장군이라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격식 있는 안수 의식을 기대했고, 요단강보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강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 혹은 자신이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발길을 돌리려 하자, 그의 곁에 있던 지혜로운 종들은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렵고 거대한 기형적인 과제를 명했다라도 장군님은 당장 행하지 않았겠느냐”며, 단지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이토록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나아만의 굳게 닫힌 마음을 깨뜨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마침내 자신의 완악한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요단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대국의 총사령관이었던 그가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던 군대장관의 의복과 계급장, 그리고 세상적인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군중

앞에서 철저히 모두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수치를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갈망했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과 수단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레마(영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친 요단강 물속에 온몸을 일곱 번 잠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자아를 장사 지내고 완전한 순종의 자리(일곱 번)에 이르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깨끗하게 되는 새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레위기 14장의 문둥병 정결 규례와 온전히 연결됩니다. 정결 규례에 등장하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 당한 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등에 놓아준 살아있는 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사탄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나 나의 연약한 느낌, 혹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내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영원히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시인하며, 이미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삶 속에서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Breaking "My Thoughts" Through Obedience



Passage: 2 Kings 5: 8-14 (ESV)

Date: May 17, 2026

Pastor: Youngmin Suh

Naaman,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Aramean kingdom who appears in 2 Kings chapter 5, was a great warrior who had earned the king's trust and achieved military victories, and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figures of his time. Nonetheless, the Bible records that he was a valiant warrior, but was also a leper—clearly showing the limitations of outward status and success. Leprosy is a dreadful disease that lies deeply hidden within a person and eventually spreads throughout the whole body; spiritually, it symbolizes the power of sin and death inherited by humanity after Adam's disobedience. The material wealth, morality, philosophy, and religion of the world can never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of sin and death, and salvation is possible solely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In his despair, General Naaman found a glimmer of hope upon hearing the faithful words of a young captive girl from Israel that he could be healed if he visited the prophet in Samaria. This mirrors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where God calls sinners out of darkness and despair and into the glory of salvation. However, even as Naaman went seeking the grace of God, he could not escape the limitations of a worldly prosperity-centered faith. He prepared an enormous amount of gold, silver, and lavish clothing, and mistakenly went to the King of Israel—a human authority—rather than the prophet who proclaimed the word of truth. Since no human can save another, the King of Israel tore his clothes in despair at this impossible

request. However, God used this very moment to expose human weakness and reveal that He alone holds the power to save.

At Elisha the prophet's house, Elisha did not even come out to meet him in person. Instead, he sent a messenger with an exceedingly simple prescription: "Go, wash your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Naaman became furious at what he thought was a disrespectful response and was about to turn away, saying,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Because of his pride and sense of dignity as the commander of a great nation, he expected a more formal, grand ceremony, and he judged that the Abana and Pharpar rivers in his own country were far better than the Jordan River. In the same way, many Christians today block themselves from experiencing God's immediate grace because their own pride, plans, and hidden worldly idols prevent them from accepting His simple instructions.

As General Naaman was about to turn away, his wise servants beside him earnestly urged him to obey the prophet's simple command to wash and be clean, saying, "It is a great word the prophet has spoken to you; will you not do it?" This exhortation was like the still, small voice of the Holy Spirit breaking through Naaman's tightly closed heart.

Yielding at last, Naaman broke his stubborn pride and forsook his thoughts and went down to the Jordan River. In order for the commander-in-chief of a great nation to immerse himself in the waters of the Jordan, he first had to completely strip off the "outer shell" of his military commander's garments, rank insignia, worldly dignity, and pride with which he

had adorned himself in front of the crowd that had gathered. He emerged as a miserable sinner with nothing left to hide.

Naaman entered the Jordan River with the exact same heart as Zacchaeus the chief tax collector, who laid down all his dignity and shame to climb the sycamore tree out of an intense longing for the Lord.

When Naaman completely abandoned his experience, means, and methods and relied only on the *Rhema* (the living Word of the Spirit) proclaimed through the man of God, immersing his whole body seven times in the rough waters of the Jordan River, an amazing miracle took place. As he completely buried his old self in the Word and reached the place of perfect obedience (symbolized by the seven times), he experienced the miracle of new life, with his flesh becoming clean like that of a child.

This astonishing event of healing is fully connected to the cleansing regulations for leprosy in Leviticus 14. The bird killed in an earthen vessel in the cleansing ritual signifies Jesus Christ, who came in human form and shed His blood on the cross, while the living bird released into the open field signifies the Lord's glorious resurrection. On the cross, the Lord bore all our sins, diseases, and the power of Satan and declared, "It is finished." Therefore, we must no longer be deceived by the condemnation Satan brings, through our fragile emotions or thoughts based on past experiences. Every day, let us lay down our own thoughts, confess that we are new creations eternally united with the Lord, and boldly proclaim in our lives only the gospel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that has already been fully accomplished.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여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